

# 여수시 온실가스 배출량 전국 최대

매년 증가…1인당 75t 전국 평균 7배

박람회 앞두고 저감 방안 마련 시급

'기후보호 국제 시범도시'인 여수시의 온실가스 1인당 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세계박람회를 대비해 그동안 여수시가 '탄소 포인트제' 등 다양한 이산화탄소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비해 대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14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수립을 위한 여수 민·관·산·학 협의체에서 김대희 YMCA 정책기획국장의 발표로 확인됐다.

김 국장에 따르면 여수시 1인당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75t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서울(4.83t)에 비해 무려 15.5배나 많고, 같은 화학도시인 울산의 36.12t보다 2배 가량 많다. 전국 평균 10.24t 보다도 7배나 많이 이산화탄소를 발생하고 있다.

산단내 공장증설이 이어지면서 연도별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매년 상승하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연도별로 부문과 영역별 온실가스 감축 실천운동과 모니터링, 여수시 기후행동계획(온실가스 저감 목표량) 수립을 위한 조작기

2000년 2299t이던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2001년 1967t 2292t으로 줄어드는가 싶더니 ▲2002년 1979t 760t ▲2003년 2085t 203t ▲2004년 2237t 7872t ▲2005년 2267t 7872t ▲2006년 2311t 9315t ▲2007년 2362t 9734t ▲2008년 2503t 7563t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도 2012년까지 1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이라면 10% 감축은 커녕 오히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연도별로 부문과 영역별 온실가스 감축 실천운동과 모니터링, 여수시 기후행동계획(온실가스 저감 목표량) 수립을 위한 조작기

구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 중이지만 실효성을 미지수다.

이같은 결과는 여수시가 '기후보호 국제 시범도시' 가입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했지만 지역적 합의를 통해 만든 것이 아니라 실천력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대희 국장은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은 지역사회에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들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를 구체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라며 "정부의 감축목표 선정보다 더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간담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모양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삼성서울병원, 땅끝농협 진료봉사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이 지난 16~17일 이를간 해남군 땅끝농협(조합장 김훈전)에서 무료 진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땅끝농협은 2010년도 종합업적 평가 전국 1위, 농산물유통대상 수상, 2년 연속 '클린뱅크' 인증 등 탁월한 경영혁신으로 의료봉사 지원 대상능협으로 선정됐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의료 사각' 목포권 의대 개설 시급

목포대 국회서 '의료서비스 현황' 정책포럼

목포대학교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목포대는 최근 국회도서관에서 '전남도 의료서비스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의과대학 유치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전남도와 목포시, 목포대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정책포럼은 의료인력 양성의 사각지대인 전남의 의료실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도민의 열망을 국회에 직접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우제창 목포대 교수는 "전남의 경우 신안과 진도 등 섬 지역이 많아 낙도 주민들을 위한 의대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 목포시 내년 예산 5624억원 의결

올보다 187억원 늘어…시의회 26억원 삭감

목포시 내년도 살림살이가 2011년 대비 187억 원이 늘어난 5624억 원으로 꾸려졌다.

목포시의회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총 26억 6900만원을 삭감시켰다.

주민소환까지 거론될 만큼 '뜨거운 감자'였던 흑산 흑염소~신안주택간 도로개설 공사비 4억 4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또 관심을 끈 임성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용역비 36억 원 가운데 당초 상임위에서 10억 원이 삼갔으나 예결위 심사에서 5억 원이 되살아나 택시개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불어 됐다.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11억 6000만원은 격

론 끝에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고교 학력증진 사업비(4억 2000만원)는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전액 삭감해 교육발전 2차 5개년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와 함께 음악분수 어여젯 진동 보강비 1억 500만원은 전액 삭감됐고, 버스재정 지원·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 환승 보전비도 2억 8400만원이 삭감됐다.

목포시 관계자는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사업 등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뒀으며,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분야가 가장 큰 비중(28.8%)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 완도경찰 체감안전도 전남지역 경찰서중 1위

완도경찰이 최근 경찰청에서 실시한 2011년 하반기 체감안전도 조사 결과 상반기에 이어 내내 1위를 차지했다.

18일 완도경찰서(총경 한재숙)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지난 8월, 10월 전국의 일반국민 7470명을 대상으로 범죄 및 교통사고 안전도·법질서 준수 등 분야별 안전도와 전반적 치안 안전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완도경찰의 종합 체감안

전도는 전체보다 무려 16점이 높은 77.3점으로 도내 21개 경찰서 중 1위(전국 249개 경찰서 중 2위)를 차지했다. 또한 범죄안전도에 대한 경찰의 노력수준에서도 완도경찰이 전국 1위를 차지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서장은 "앞으로도 주민감동 명품 치안 서비스를 확대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 상무랜드공인중개사

#### 가은 부동산

#### 대인동삼일부동산

####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LH공사주 남지사로 유지빌딩 501

#### 투자 및 사업용 토지

■ 광산구 송정동 송정역 부근 4,260㎡

제2종일반주거역, 35m 계획도로 접한 매매가 3.3㎡당 110만원.

■ 광산구 송정동 송정역 앞 1,117㎡

제2종일반주거지역, 매매가 3.3㎡당 300만원.

■ 광산구 소촌동 공무원 교육원 옆 6,600㎡

제1종일반주거지역, 평도로 접한 매매가 3.3㎡당 100만원.

■ 광산구 용동 지하철 차량기지옆

제1종일반주거지역, 629㎡, 3.3㎡당 95만원.

■ (금매) 서구 화정동 터미널 뒷편 868㎡

일반상업지역, 3.3㎡당 280만원. 공시지가는 3.3㎡당 325만원.

■ 서구 치평동(상무지구) 중심 상업지역.

한국은행 뒷편 990㎡, 3.3㎡당 590만원.

■ 서구 세하동 동화마을 부근, 전 2차선 도로접함

1,035㎡(313평) (도로 77평포함)

매매가 4억 2000만원. 식당, 사무실, 기타, 적합

■ 동구 소래동 대야아파트 부근, 장종지, 627㎡(190평)

매매가 3.3㎡당 130만원. 복개된 국유지 구역 약 70평

별도 이용가능. 전문식당 적합(보리밥, 흑염소, 순두부, 등)

010-3616-8698. 062-233-2222

미우매나 전화 주십시오★  
※FAX: 0383-5221, 휴 010-609-5221  
(상무지구 아버들 김자경 1층)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 미우매나 전화 주십시오★  
※FAX: 0383-5221, 휴 010-609-5221  
(상무지구 아버들 김자경 1층)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상무지구 아버들 김자경 1층)

010-3616-8698. 062-233-2222

(상무지구 아버들 김자경 1층)